

• 풍향계 •

창업열기 급냉, 벤처생태계 위축



식어가는 창업 열기의 현장은 벤처 집적시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공공 집적시설보

다 민간 집적시설의 경우가 더 심각하다.

대덕밸리 22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수도 지난해 8월말 405개에서 불과 4개월 만에 382개로 줄어드는 등 벤처 창업 열기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대덕밸리 벤처업계에 따르면 대덕밸리의 대표적인 벤처집적시설인 동아벤처빌딩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TBI 등의 공실률이 10%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덕밸리가 진정한 벤처밸리로 성장하기 위해선 창업열기 확산을 통한 벤처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동아벤처빌딩의 경우 벤처집적시설로 지정된 이후 최대 120여개 달하는 기업들이 입주했으나 지난해말부터 서서히 입주기업들의 이탈현상이 줄어들고 있다. 현재는 100여개 남짓한 벤처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나머지 공간은 일반 기업의 사무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윈도심 활성화 및 벤처기업의 공간확보를 위해 마련된 윈도심 벤처빌딩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W벤처빌딩과 C타워는 벤처집적시설로 지정됐지만 벤처기업들이 열악한 환경과 지원체계 미흡 등의 이유로 기업들의 입주가 사실상 끊긴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최근 문을 연 둔산동 대전둔산우체국은 일부 공간을 벤처기업에 임대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13개 공간 중 단 2곳에 벤처기업들이 입주했다.

이밖에 벤처집적시설로 지정된 만년동 G빌딩에는 고작 3개의 벤처기업이 입주한 상태고 나머지 공간은 일반 기업의 사무소로 채워져 있어 창업열기 위축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밭대 창업보육센터 이장훈 팀장은 “1~2년전만 해도 입주를 묻는 예비 창업기업들의 문의가 폭주해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면서 “지금은 이마저 끊겨 대덕밸리 벤처기업들의 창업열기가 극도로 위축됐다는 것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성공벤처 탄생이 창업열기 살리는 길

대전시가 밝힌 대덕밸리 벤처기업은 800여개 정도, 대덕밸리에서 지난 한해 동안 창업한 기업은(인증과 무관) 30~40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창업위축 현상은 그동안 구축해온 대덕밸리 벤처생태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있다.

비상 걸린 창업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첫 번째 활기찬 창업시장을 위해서는 대덕밸리에서 벤처의 성공 모델이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창업의 가장 큰 동기는 ‘나도 할수 있어’라는 자신감이기 때문이다.

유평스타 심재기 대표는 “대덕밸리는 연구기능이 타 지역에 비해 우월하나 산업적인 측면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대덕밸리가 연구와 산업, 비즈니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된다면 벤처창업은 끊임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벤처기업협회 장홍순 회장은 “시장을 만드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이와 관련, “공공 분야 사업에서 기술적인 차이가 없다면 중소 벤처기업을 우선 고려하는 정책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어벨 최 훈 대표는 “정부의 무분별한 벤처양산으로 정작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그 대상에서 벗어났다”며 “무늬만 벤처인 기업을 숙아내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만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덕밸리벤처연합회 백종태 회장은 “대덕밸리가 계속 벤처산업의 메카로 명성을 얻으려면 성공벤처와 샘솟는 창업 열기는 필수적”이라면서 “위기의 벤처업계를 살리는 일은 벤처 뿐만 아니라 정부, 그리고 지방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덕벤처, R&D로 승부 건다

대덕밸리 기업들이 R&D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일부 기업에서 많게는 순익의 90%이상을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고 있으며 신제품 개발을 위해 R&D 인력보강 작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대덕밸리 광통신 전문업체 아이티(대표 공비호)는 올 한해 R&D에 집중 투자,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에 돌입했다. 실제로 전체 직원 54명중 연구개발 인력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회사는 최근 또다시 4명의 R&D 인력을 충원한바 있다. 이 회사는 올해 IMT-2000사업을 비롯해 차세대 통신시스템 MSPP(NG-SDH) 등 차기 사업에 대한 성공과 대응을 위해 특히 R&D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소프트웨어 전문 벤처기업 지란지교소프트(대표 오치영)

역시 R&D투자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업 9년 차인 이 회사는 올 한해 총 예산의 15%를 연구개발에 투자할 예정이다. 오 대표는 “올해 차기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R&D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지금까지 해왔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에 좀 더 전문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총 직원중 3분의 2가량의 소프트웨어 전문 개발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덕밸리 벤처기업 케이스크(대표 김명열)도 개발인력을 중심으로 충원 계획을 밝혔다. 김 대표는 “R&D는 고객과의 대화과정”이라며 “성공적인 시장진출을 위해 좀 더 영업적인 마인드가 가미된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호 코스닥 등록기업 블루코드테크놀로지(대표 김태형) 역시 총 직원 30여명중 20여명이 R&D부서에 포진돼 있으며 반도체 장비관련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을 좀 더 보충할 계획이다. 신약개발 전문벤처인 크리스탈지노믹스(대표 조중명)는 지난해 순이익의 90%를 R&D분야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인력을 충원해 신약개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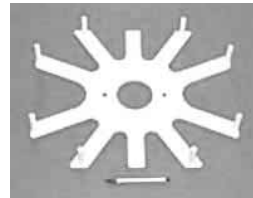
바이오 벤처인 인바이오넷(대표 구본탁)은 올해 IT와 BT의 융합기술 개발을 R&D 역점 사업으로 보고 집중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생물농약 기업 대덕바이오(대표 성창근) 역시 농약과 사료 첨가제, 기능성 쌀을 중심으로 신제품 개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덕밸리 벤처연합회 이인구 국장은 “대덕밸리의 가장 큰 장점은 지속적인 R&D개발 능력”이라면서 “마케팅 등과 유기적인 시스템을 갖춘 R&D 개발이 대덕밸리의 올 한해 새로운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신제품/신기술 •

단단, ‘Fine Ceramics’ 신소재 출시



▲ ‘Fine Ceramics’

기존 알루미나 소재로 된 각종 산업의 핵심공정 부품들을 대체하는 신소재가 개발됐다.

세라믹 제조 전문업체 단단(대표 이강호)은 기존 소재보다 더 단단하고 마

모성이 적은 신소재인 ‘Fine Ceramics’를 개발, 출시했다. ‘Fine Ceramics’란 고성능, 고기능성의 세라믹을 총칭하며, 일명 ‘New Ceramics’라 한다.

이번 신소재는 공정과정에서 식각돼 나오는 파편으로 인해 공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 기존 알루미나 소재는 금속과 약품 등에 약하기 때문에 부품이 휘어지거나 온도의 변화에 따라 마모성이 높았지만 이번 세라믹 소재는 기존 소재보다 최소 2~10배 부식효과가 뛰어나며 사용기간도 대폭 늘렸다.

문의 : 042-864-2451

비엔에프, 한국전력기술과 40억 과제 수행

감시 및 제어계측 솔루션 개발 벤처기업 BNF테크놀로지(대표 서호준)는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대표 박용택)와 40여억원에 달하는 PMAS 소프트웨어 개발과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BNF테크놀로지는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가 수행하는 신고리 원전 1/2호기, 신월성 원전 1/2호기의 발전소 감시경보시스템인 ‘PMAS’ 설계 및 소프트웨어 개발 과제를 공동 수행하게 된다. PMAS는 BNF테크놀로지가 한국전력기술과 함께 한국형 표준원전 설계 개선과제(KSNP+)를 수행하면서 지난 2001년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원전 감시 및 경보용 시스템 소프트웨어이고 그동안 외국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기존 한국형표준원전에서 PMS(Plant Monitoring System : 발전소 감시계통)와 PAS(Plant Annunciator System : 발전소 경보계통)로 나뉘 설계되던 것을 통합 설계한 이 소프트웨어는 설계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킨 것은 물론 기능성과 이식성, 유연성, 경제성, 유지보수성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문의 : 042-868-2817